

懶翁 禪詩에 나타난 달[月]의 상징

李 鍾 君*

목 차

- | | |
|------------------------|-------------------|
| I. 序 論 | 2. 中道智慧를 의미하는 달 |
| II. 懶翁 詩에 나타난 달[月]의 意味 | 3. 調和와 無碍에 어울리는 달 |
| 1. 六根의 體·用에 쓰인 달 | III. 結 論 |

I. 序 論

高麗末 王朝의 교체기가 가까워 오면서 고려 말기의 사회는 거둬되는 내
우의환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思想的
으로는 일부 성리학자들에 의해 불교의 世俗權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시작
됨으로써 儒·佛의 交替가 이루어지는 시대적 추세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
한 와중에서도 당시의 佛教界는 普照國師 知訥에 의하여 제창되었던 새로운
結社운동의 영향으로 禪僧들은 면면히 禪風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일에 앞
장서서 고려말에 禪風을 불러 일으킨 불교계 지도자는 普愚와 慧勤이었다.¹⁾

懶翁 慧勤(1320~1376)은 이러한 고려말기에 활약한 두드러진 高僧이었다.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1) 김상기, 「고려시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p. 679~695.

우정상의, 「한국불교사」 신흥출판사, 1976, pp. 114~127.

그의 문집인 「懶翁集」에는 행장과 어록에 수록된 禪詩 20首와 歌頌章에 禪詩 294首, 도합 314首의 선시가 전하고 있다.²⁾ 지금까지 나옹 혜근의 禪詩에 관해서는 몇몇 사람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³⁾ 그러나 본격적으로 詩 作品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도 이렇다할 업적이 보이지 않으며, 더구나 懶翁 禪詩가 지닌 상징성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시도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懶翁 禪詩에 등장하는 많은 자연 소재 중에서 특히 달「月」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에 대하여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시에도 상징은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지만 초월성을 지향하는 禪詩에는 상징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禪家에서 문자를 세우지 않음이 한편으로는 언어의 부정일 수도 있다. 이러한 언어의 부정에서 부득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그 언어는 일상적 언어이면서 日常性을 초탈하게 된다. 이 ‘일상성의 초탈’, 이것이 바로 평범한 언어의 非凡性이다. 따라서 禪詩의 언어는 지극히 압축된 언어, 비약적이고 비유적이며 고도로 상징화 된 언어다.⁴⁾ 이와 같이 압축된 언어가 쓰이는 禪詩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나옹 선사에서 달이 지닌 상징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텍스트는, 1940년 오대산 月精寺藏版 「懶翁集」을,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서 영인하여 새로 편역한 「懶翁錄」⁵⁾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2) 이종균, 나옹선사의 시 세계, 부산대학교육대학원(석사), 1989, p. 7.

3) 신영심, 나옹혜근의 선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연구논집 13집, 1985.

김경은, 나옹혜근의 시연구,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1986.

〈고려 선시의 일부분으로 다룬 연구〉

이종찬, 「한국의 선시」(고려편), 이우출판사, 1985.

인권환, 「고려시대 불교시의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김용조, 나옹혜근에 관한연구, 「논문집」(인문계편) 제21집, 경상대학교, 1982.
—— 史的 연구임.

4) 이종찬, 「한국의 선시」(고려편), 이우출판사, 1985, p. 37.

5) 백련선서간행회역, 「懶翁錄」 장경각, 1991. 「懶翁集」의 ‘集’字를 ‘錄’字로 바꾸어 서명을 붙였으나, 한문 원전은 월정사장판 그대로임.

II. 懶翁 詩에 나타난 달[月]의 意味

懶翁禪師는 禪院의 內堂에서 참선수행하는 대중들을 모아 놓고 說法하는 자리에서도 ‘부처의 참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아, 물속의 달처럼 물건에 따라 형상을 나타낸다.’⁶⁾ 라고 佛性을 달에 비유하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 說法에서의 달은 月印千江之曲에서 비유하는 달과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

나옹 선사가 元나라 大都의 法源寺에서, 元나라에 도착한 이후 최초로 禪問答을 주고 받은 指空화상이 入寂한 날이 돌아와, 추모하는 法語에서도 역시 달을 佛性에 비유하여 설법을 하고 있다.

왔어도 온 것이 없으니 밝은 달 그림자가 강물마다 나타난 것 같고,
갔어도 간 곳이 없으니 밝은 허공의 形容이 모든 법계에 나누어진 것 같다.
말해보라. 指空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⁷⁾

인간의 육신은 인연따라 태어남과 죽음이 있으나 본래 生滅이 없는 眞如自性は 오고 감이 없어 如如不動함을 강조하면서, 지공의 머무는 곳을 역설적으로 물어 집착하는 마음을 타파하고 있다.

또 承懿公主의 靈駕를 천도하기 위하여 배운 水陸齋의 廻向의식을 거행하면서 내린 法語에서도 달을 비유하여 설법을 계속하고 있다.

이 집에 가득한 형제들이여, 알겠는가? 청풍명월이 곳곳에서 반짝이니, 이 법회에는 모든 부처님이 다 내려오셨고, 三賢 十聖이 다 귀의하오.⁸⁾

밝은 바람이 불어오고 밝은 달이 비치는 實在 그대로가 佛身普現의 진리이므로, 모든 성인들이 이러한 진리에 귀의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語錄의 설법 장면에서도 달을 자주 끌어와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 나옹선사는 달이 진리를 드러내 보이는 데 있어서 매우 합당한

6) 나옹록, p. 40, 佛眞法身 猶如虛空 應物現形 如水中月.

7) 나옹록, p. 49, 師云 本無所來 如朗月之影現千江 去無所去 似澄空之形分諸刹 且道 指空 畢竟在什麼處.

8) 나옹록, p. 55, 滿堂兄弟還知未 明月清風處處彰 佛佛降臨來此會 三賢十聖盡歸依.

자연물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이러한 성향은 그의 시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懶翁集」에는 모두 314수의 시가 실려 있다. 清雅한 禪味를 풍기는 나옹선사의 禪詩는 그가 우주와 인생에 대하여 깨달은 진리에 바탕을 둔 자아의식의 세계를 禪機가 번득이는 詩語들로 활달하게 표현하였다. 나옹 詩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懶翁集」의 歌頌에 실린 禪詩 294首의 詩語를 분석하여 자연소재 詩語가 쓰인 빈도수를 조사해보면 달(月)이 52회나 쓰였다.⁹⁾ 懶翁 禪詩는 하늘, 산, 바람, 달 등과 六窓과 四壁이라는 詩語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마음의 바탕이 허공과 같다는 普光明智의 발현으로, 理法界와 事法界가 걸림없이 蕩蕩無碍한 禪師의 심성을 그려내고 있다. 懶翁禪師는 거처하는 방을 江月軒¹⁰⁾이라 하였으며, 그의 선시에는 六窓과 孤月·寒月·明月·風月이 결합된 詩語가 무려 10여 회나 쓰였다. 그 외에도 明月, 日月, 夜月, 溪月, 秋月, 性月, 寶月 등 ‘月’과 결합된 詩語가 40여 회 가까이 쓰여 시를 이루고 있으며, 앞서 본 語錄에도 달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달을 가까이 하고 달에 관심이 컸던 禪師였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고는 懶翁 禪詩 중에서 달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면서 쓰이고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六根의 體·用에 쓰인 달

불교 교리에서 六根은 바깥 경계의 대상들을 받아들이는 기관인 眼·耳·鼻·舌·身·意를 말한다. 이 六根이 받아들이는 객관적 대상을 차례대로 나열하여 色·聲·香·味·觸 法이라 하며, 이것이 自性을 어지럽힌다 하여 六塵(또는 六境)이라고도 한다. 이 六塵을 여섯 기관인 六根이 받아들이는 작용을 六識이라 하며, 六根·六塵·六識, 이 셋을 통틀어 十八界라 한다. 이 六根과 六塵은 모든 불교의식에서 빠짐없이 독송하는 般若心經에 그대로 나오는 구절이다.¹¹⁾ 나옹 선시에는 이러한 六根을 六窓으로 표현하고, 인간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요소인 地·水·火·風을 四壁으로 표현하여 시를

9) 이종균, 나옹선사의 시 세계, 부산대 교육대학원, 1989, p. 89.

10) 나옹록, p. 17, 所居室曰 江月軒.

11) 진소천, 「반야심경 강의」 흥법원, 1977, p. 40, p. 94.

음은 것들이 있다.

玉蟾飛起海門東	달이 바다 동쪽에서 솟아오르니
一屋寥寥四壁空	한 방은 고요한데 네 벽은 텅비었네
光影有誰能辨的	어느 누가 빛과 그림자를 판단하라
六窓都是主人公	여섯 창 모두가 바로 주인공이네.

〈나옹화상 가송, 月堂〉¹²⁾

자연에 두루하는 달빛을 時空을 초월한 佛性の 작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달빛같이 밝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볼 때 眼·耳·鼻·舌·身·意의 작용이 바로 眞如妙用이 되는 것이다. 玉蟾은 달을 상징하고 고요한 방은 寂然不動의 本心자리를, 네 벽은 地·水·火·風의 四大로 구성된 인간 肉身을 상징한다. 달이 돌아오른다고 해서 인간 육신이 텅빌 이치가 없다. 그러나 원만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 인연있는 동안에 유지되는 四大肉身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無常한 것이다. 깨달음의 경지란 다름아닌 佛性の 자리이다. 어느 누가 本性和 現像의 妙理를 확연히 구분하겠는가. 眼·耳·鼻·舌·身·意로 나누어진 주체적인 六根과 객관적인 六窓의 動用이 깨달은 주인공의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 자아와 대상이 둘이 아닌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의 달은 ‘불성의 작용’을 상징하면서, 轉·結句와의 내용 연결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六窓과 四壁이 쓰인 시를 하나 더 분석해 보자.

體若空花無處覓	본체는 허공꽃과 같아서 찾을 곳이 없는데
六窓風月包清虛	여섯 창에 바람과 달빛은 청허를 둘러쌌네
無中似有還非實	없는 가운데 있는 듯하나 실체가 아니니
四壁玲瓏暫借居	네 벽이 영롱하여 잠깐 빌어 산다네.

〈나옹화상 가송, 幻庵〉¹³⁾

12) 나옹록, p. 122.

13) 나옹록, p. 101.

禪은 깨달음을 그 요체로 삼는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話頭를 드는데, 화두는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의심덩어리이다. 이 의심은 곧 모든 분별을 없애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선의 논리는 항상 인간의 의식을 부정하거나 本性의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다.¹⁴⁾

나옹선사는 寺中에 사부대중을 모아 놓고 설법하면서도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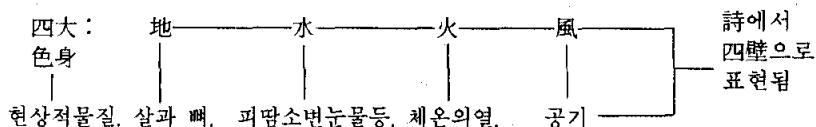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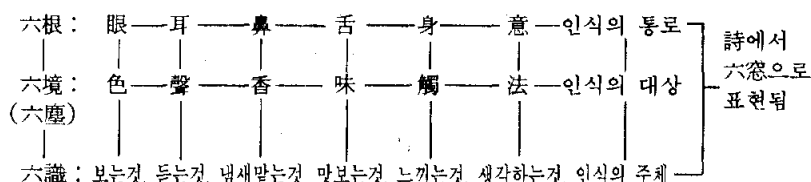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자기에게 있다는 그 하나[一着子]는 하늘에 두루 하고 땅에 가득하지마는, 삼세의 모든 부처도 역대의 조사도 천하의 선 지식들도 감히 바른 눈으로 보지 못하니,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당장 깨닫는 길뿐이다.¹⁵⁾

이 설법에서 말하는 一着子와 시에 쓰인 本體는 하나의 대상을 다르게 이름붙였을 뿐이다. 詩의 起句에 나오는 본체는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크기도 없어 이름조차 붙일 수 없지만, 억지로 眞如니 佛性이니 般若니 法性이니 하는 것이다. 그러니 본체라는 것이, 눈병때문에 ‘없는 번쩍거림[空華]이 착각으로 인하여 보이는 경우’와 같이 실체가 없는 허공꽃[空華]과 같으니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본체는 또 모든 사물에 인연 따라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眼·耳·鼻·舌·身·意·六根이 감지할 수 있는 바람과 달빛이 本體와 통하고 있다는 점을 깨우쳐 주고 있다. 이 시에서는 달빛이 本體(淸虛)를 둘러쌌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자연히 이 시에 쓰인 달빛은 ‘本體의 作用을 상징’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두 首의 詩에 표현된 六窓과 四壁에 관하여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14) 김운학, 「불교문학의 이론」 일지사, 1981, p. 99.

15) 나옹록, p. 45.



위의 도표에서 분석한 대로 ‘六窓’은 인간 사고의 주체인 意識이 눈·귀·코·혀·몸을 통하여, 외부의 대상인 모양·소리·향기·맛·접촉을 인식하는 作用을 상징하고, ‘四壁’은 肉身(色身)의 허망한 실상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宋代 이래 直觀的 觀點을 가진 비평가들이 말한 詩에 대한 개념은, ‘詩란 시인의 世界觀의 구체화, 달리 말해서 시인의 의식을 통해 반영된 세계의 구체화’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批評派들은 禪의 영향 밑에서 일어난 것이며 그것에 대한 최초의 주요 발언자는 13세기의 嚴羽(1185~1235)였다. 엄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詩의 최고 경지는 한 가지 즉 ‘入神한다’는 데 있다. 만약 시가 이렇게 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頂點에 도달할 것이며,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가 詩에서 ‘入神한다’고 한 말의 뜻은 시에서 상상적으로 사물의 생명을 파고 들며, 그 精髓와 그 정신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상적 詩란 세계의 反影—形象—을 이루는 것이며 세계관의 具體化, 혹은 그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詩人의 의식을 통해 반영된 세계의 구체화라 할 것이다.¹⁶⁾

다음 시에서 懶翁禪師가 禪修行을 통하여 체험한 정신 세계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16) 劉若愚, 「中國詩學」 동화출판공사, 1984, pp. 115~117.

萬像都歸一念消	단상이 모두 한 생각에 돌아가 사라지니
六窓明月靜寥寥	여섯 창에는 밝은 달이 텅비어 고요하네
塵塵不是他家物	온갖 티끌이 남의 것이 아니니
法界含容小屋頭	조그만 암자 끝에 온 법계가 다 들었네.

〈나옹화상 가송, 順菴〉¹⁷⁾

이 시의 起句에서 표현한 萬像은 온갖 삼라만상을 가리키면서 또한 萬像을 대하여 일어나는 煩惱妄想도 아울러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시에서 複合心象¹⁸⁾에 속한다. 왜냐하면 외부의 대상에 대하여, 거기서 받아들인 생각을 불교에서는 思量分別하는 번뇌망상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첫구에 표현된 나옹의 정신세계에는 이러한 번뇌망상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하여 承句에서는 눈·귀·코·혀·몸·뜻의 여섯 감각 기관인 六根을 시에서는 六窓으로 표현하여, 그 六窓의 작용이 밝은 달빛같이 고요하고 거러김없다는 표현이다. 起句의 원인이 충족되니 承句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轉句의 詩想은 시의 짜임에서 상당한 비약을 하고 있다. 번뇌가 사라지고 自性の 心月이 六窓에 빛나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보니, 나와 온갖 티끌 즉 自我와 世界가 둘이 아닌 主客一如의 圓融한 眞如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結句는 화엄경의 事事無碍 法界와 같은 것으로, 新羅 義湘大師가 지은 法性偈의 ‘一中一切多中一 一即一切多即一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와 다를 바가 없다.¹⁹⁾ 다만 한 티끌이 菴子로 대치되었을 뿐이다. 결국 이 시에서 달은 ‘自性の 心月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나옹 선시에는 六根을 六窓이라는 시어로 상징하여 그 근본(體)과 그 작용(用)을 노래한 시가 여럿이나 된다. 다음에 드는 시도 그런 것이다.

的的無碍親답着	명백하게 의심 없애고 몸소 밟으니
六窓孤月再分明	여섯 창외로운 달이 다시금 분명하네

17) 나옹록, p. 104.

18) 유약우, 앞의 책, p. 145.

19) 전호련, 신라 의상의 화엄교학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89, p. 120.

從茲不妄東西走 이제부터 망상으로 이리저리 헤매지 않으니
小屋終年徹底清 조그만 이 암자는 일평생 철저히 맑으니.

〈나옹화상 가송, 信庵〉²⁰⁾

고려 충목왕 4년(1348) 28세의 젊은 나이에 求法차 元나라로 간 나옹선사는 10년 간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이르는 곳마다 高麗人의 기풍을 드높이면서 당당한 기개를 떨쳤다.²¹⁾ 그는 원나라 강남의 休休庵에서 여름 結制를 맞아 坐禪에 관한 법문을 하면서도 해와 달을 들어 대중들을 교화하고 있다.

좋고 나쁜 경계에 뇌란하지 않고 물질[色]과 소리[聲]에 끄달리지 않음을
坐라 하고, 日月보다 밝은 광명으로 어둠을 밝히고 천지보다 큰 힘으로
教化함을 禪이라 한다.²²⁾

해와 달보다는 더 빛나는 自性の 광명으로 無明을 밝혀 교화에 힘쓰기를 권하고 있다. 위 시의 起·承句에서는 自性を 깨치고 보니, 미혹한 범부로 있을 때라고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눈·귀·코·혀·몸·뜻의 일상적 작용이, 깨달은 경지에서는 光明을 발하는 달과 같이 환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轉·結句에서는 깨달은 광명의 힘으로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되었으니, 작은 암자는 항상 철저히 맑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結句의 ‘小屋’은 나옹 자신을 지칭하는 겸양으로서의 상징어이며, ‘徹底清’은 禪家에서 궁극을 표방하는 內外明徹²³⁾을 의미하는 詩語이다.

六祖 慧能(638~713)禪師는 중국 사람들이 노자, 공자, 맹자 장자와 같은 유의 위인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의 사상과 언행은 제자들에 의하여 편집된 「六祖壇經」(혹은 敦煌本壇經)에 잘 나타나 있다.²⁴⁾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돈황본단경」에서 밝힌 內外明徹을 살펴보자.

20) 나옹록, p. 109.

21) 나옹록, p. 18.

22) 나옹록, p. 166.

23) 성철역, 「敦煌本 壇經」 장정각, 1988, p. 29.

24) 오경웅, 「禪의 향연(상)」 동국역경원, 1988, p. 41.

세상 사람들의 성품의 청정함도 마치 깨끗한 하늘과 같으며, 慧는 해와 같고 智는 달과 같아 지혜가 항상 밝거늘,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념의 틈구름이 덮여서 자기의 성품이 밝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참다운 법을 열어주시는 선지식을 만나 迷妄을 없애 버리면 內外明徹하여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 일체법에 자재하니, 청정법신이라고 이름하느니라.²⁵⁾

앞 시에 표현한 徹底清도 이와 같은 內外明徹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무튼 앞 시에서 달은 역시 나옹선사의 自性光明이 六根에 그대로 작용하는 경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中道智慧를 의미하는 달

불교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종교이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하루 빨리 깨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에 自性を 깨치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일체 만법의 근본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의문을 해결해 주는 다음과 같은 선언이 화엄경에 실려 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어 일체만유를 다 둘러보시고 감탄하여 말씀하셨다.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여래와 같은 지혜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²⁶⁾

불타와 같이 명백하게, 누구든지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히 선포한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없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그것은 불교 철학의 최고 원리인 中道を 깨달아야 한다.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인 圓敎가 바로 中道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중국 天台 智者(538~597)의 가르침이다.

25) 성철 역, 「돈황본 단경」, pp. 30~31.

26) 性徹, 「百日法門」上, 장경각, 1992, p. 28.

菩提樹下初成正覺 歎曰 奇哉奇哉 一切衆生 皆有如來智慧德相 以分別妄想 而不能證得. 〈화엄경〉

圓教란 이 중도를 나타내니 양변을 막느니라. 마음이 이미 맑고 깨끗해지면 양변을 다 막고, 바르게 중도에 들어가면 두 법을 다 비추느니라.²⁷⁾

여기서 〈양변을 다 막는다〉는 것은 相對矛盾을 다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현실 세계란 전체가 상대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과 불,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있음과 없음, 즐거움과 괴로움, 너와 나 등등입니다. 양변을 버리면서 양변이 융합하고, 양변이 융합하면서 양변을 버리는 雙遮雙照가 화엄종취인 것입니다. 중국 淸涼(738~839)스님은 賢首(643~712)대사의 〈探玄記〉에 있는 華嚴宗趣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곧 비취서 막고 곧 막아서 비치어 양변을 다 막고 양변을 다 비추어 둥글고 밝게 일관하면 화엄종취에 계합하느니라.²⁸⁾

中道を 깨달으면 佛性を 깨닫는 것이다. 佛性を 第一義空이라 하니 그것이 곧 지혜요, 지혜는 空과 不空, 常과 無常, 苦와 樂, 我와 無我를 함께 봅니다.²⁹⁾ 깨달음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禪師들에겐 가장 절실한 문제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본고에서는 깨달음의 지혜를 중도지혜라 부르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나옹선사의 詩에 등장하는 달이 이상과 같은 중도지혜를 상징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參禪辨道別無奇	참선하고 도를 구하는 일 별로 대단할 것 없어서
要在當人勇猛期	당사자가 용맹으로 기약하기에 달렸네
蘊到水窮山盡處	물이 다하고 산도 다하는 곳에 단박에 이르면
一輪心月鎮光輝	둥근 마음 달이 모든 빛을 무색케하리라.

〈나옹화상 가송, 瑤禪者 求偈〉³⁰⁾

평범의 非凡性, 이것이 바로 禪詩의 특질이다.³¹⁾ 이 시에서 ‘참선하고 도를 구하는 일’이 실상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별일 아니다.’라고 한 것은 禪師

27) 성철, 앞의 책, p. 55. 圓教者 此顯中道 遮於二邊 心既明淨 雙遮二邊 正入中道 雙照二諦.

28) 성철, 앞의 책, pp. 55~57. 卽照而遮 卽遮而照 雙照雙遮 圓明一貫 契斯宗趣矣.

29) 성전편찬회, 「불교성전」 동국역경원, 1993, p. 487.

30) 나옹록, p. 143.

31) 이종찬, 「한국의 선시」 이우출판사, 1985, p. 37.

들이 흔히 學人들을 깨우치기 위해 구사하는 對法이라고 볼 수 있다. 선사들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수행자가 有에 집착하면 無를 내세우고, 無에 집착하면 有를 내세우며, 色에 집착하면 空을 내세우고, 空에 집착하면 色을 내세움으로써, 학인들의 고정된 관념을 깨뜨려서 깨달음을 열어 주려고 이런 여러 가지 方便을 자유로이 구사하기도 한다. 육조 혜능선사는 36 對法을 알아서 잘 쓰면 일체의 경전에 통하고 출입에 곧 兩邊을 떠나서³²⁾ 中道를 성취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어렵다’는 사람에겐 ‘쉽다’는 對法을 써서, 다만 목숨을 걸고 용맹정진하는데 참선의 핵심이 있음을 起·承句에서 밝히고 있다. 轉·結句에서는 이러한 노력으로 물도 다하고 산이 끝나는 곳, 禪의 용어로 滅盡定的 경지에 단박에 이르면, 원만한 마음달이 지혜광명을 발하여 여타의 일체의 밝음을 무색케 한다는 뜻이다. 이 시에 나오는 心月은 일체 兩邊을 초월한 지혜광명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心月은 中道智慧를 상징하는 달이 되는 것이다.

(가)

十里荷花九里松	10리는 연꽃이요 9리는 소나무인데
在山在水且非同	물에 있고 산에 있으니 또한 같지 않구나
中間風月非山水	그 중간의 바람과 달은 산도 물도 아니지만
照地掀天到劫空	땅을 비추고 하늘을 흔들어 공겁까지 가도다.

〈나옹화상 가송, 題江南九里松〉³³⁾

(나)

性月清圓照本空	성품달이 밝고 뚜렷해 본래의 공을 비추건만
柴門掩閉客難通	사림문을 닫아 두니 사람 다니기 어렵구나
貧無一物誰能到	가난하여 아무 것도 없으니 누가 거기 가겠는가
小屋今年直是窮	이 작은 암자가 금년엔 바로 그 가난일세.

〈나옹화상 가송, 澄菴〉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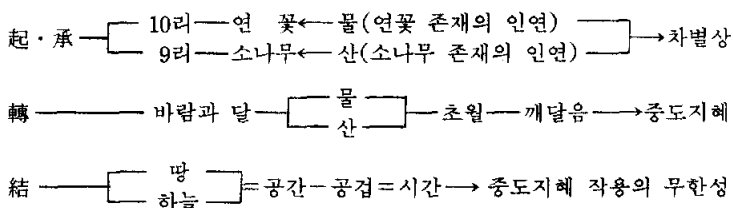
32) 성철 역, 「돈황본 단경」 장경각, 1988, p. 251.

33) 나옹록, p. 162.

34) 나옹록, p. 107.

禪詩에 쓰인 언어는 얼핏보면 평범한 듯이 보이지만, 실로 평범의 이면은 비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禪은 世界와 自我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이를 위해 풍부한 상상과 예리한 관찰, 그리고 심도 있는 투시력을 발휘하여 幽深玄妙한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 이처럼 절대적 세계를 거리낌 없는 無分別智에 근거하여 초논리적인 직관을 통해 깨닫고자 하는 禪의 입장은 그대로 꾸준한 美的 가치를 발견하려는 詩創作의 원리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不立文字와 言語道斷을 표방하는, 禪家의 침묵을 배경으로 한 언어는 지극히 압축된 언어이다. 때로 초현실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러한 선의 언어가 갖는 특징이 그대로 시의 언어와 상통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⁵⁾

(가) 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만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시에 쓰인 연꽃과 소나무는 우주法界 重重無盡한 삼라만상의 차별상을 대표하는 시어로 쓰였다. 물은 연꽃이, 산은 소나무가 자라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며, 불교에서 존재의 원인으로 보는, 因緣所起한다는 緣起 思想을 담고 있다. 바람과 달빛은 물과 산에도 자유롭고 연꽃과 소나무에도 걸림없이 비치기 때문에 엇매이지 않는 속성이, 깨달음에서 얻는 중도지혜로 수렴된다. 바람과 달로 상징된 중도지혜가 空劫까지 다다른다는 표현은 그 작용의 무한성을 들추어낸 말이다. 이리하여 (가) 詩에서의 달은 중도지혜를 상징하고 있음을 도출해 내었다.

(나) 詩에서는 ‘性月’이 한 낱말덩이이다. 일반적인 글자의 뜻은 ‘성품의 달’ 또는 ‘마음의 달’이라 하겠으나, 본래의 空을 관조하는 경지가 되려면 중도지혜를 깨달아야 가능한 것이지, 미혹한 凡夫 상태에서는 本空을 徹見하

35) 김문환, 불교와 美學, 「불교와 제과학」 동국대학교, 1987, p. 42.

기가 불가능한 일이다. ‘사림문’은 禪修行의 打破關門³⁶⁾과 의미가 상통하는데 곧 話頭를 깨치는 것을 뜻한다. 有와 無, 色(물질 또는 현상)과 空, 높고 낮음, 부와 가난이 얼씬거릴 수도 없는 圓成의 세계³⁷⁾인데, 이것을 가난하다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이 되는 것이다. 結句는 懶翁의 心境이 몸소 그 가난함 곧 깨달음의 大無心地에 현재[금년] 머물러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리하여 (나)詩의 ‘心月’은 본래의 空을 관조하는 중도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3. 調和와 無碍에 어울리는 달

불교에서 말하는 眞如一心은 자연의 현상과 同體를 이루며 物我一體와 主客一如의 詩心을 發現하기도 한다.³⁸⁾ 禪은 이러한 眞如一心에 이르는 길이며, 禪 속에서 一切 萬有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禪師가 이 禪의 一心에 이르러 시를 읊은 것이 禪詩라고 할때, 禪詩는 자연에 투영된 禪心이 主客一如³⁹⁾의 경지에서 調和와 無碍의 세계를 표출하게 된다. 이것은 자아의 무한한 전개요 절대평등의 세계이다. 자아는 자연과 대립되지 않으며 일체가 되어 서로 調和를 이루면서 無碍의 경지로 승화된다.

자연 속에 묻혀 살며 달에 관심이 컸던 나옹 선사는 달을 벗삼아 함께 어우러지면서 調和와 無碍로움을 그려내고 있는 詩를 여러 수 남기고 있다.

白雲堆裏屋三間	흰구름 쌓인 속에 세 칸 초막 있어
坐臥經行得自閑	앉고 눕고 거닐기에 스스로 한가하네
澗水冷冷談般若	차가운 시냇물은 반야를 말하는데
淸風和月遍身寒	맑은 바람은 달과 어울려 온 몸을 감싸네.

〈나옹화상 가송, 山居〉⁴⁰⁾

36) 나옹록, p. 61. 的的無疑 透過玄關 三世諸佛 歷代祖師 天下善知識.

37) 신소천, 「원각경」 흥법원, 1978, p. 312, 위덕자재보살장.

38) 이종균, 앞의 논문, p. 39.

39) 인권환, 앞의 책, p. 211, 참조.

40) 나옹록, p. 94.

한 폭의 동양화를 대한 듯이 아름답고 한가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시다. 自然美는 인간과 대립적인 객관적 대상의 美가 아니라, 무위자연의 道에 순응하고 이를 존송하는 가운데 체험되는 인간의 美的 감동에 근원을 둔 美이고, 한편 藝術美는 그러한 자연미와 인간과의 사이의 매체 내지 통로로서 존재하게 되며, 결국 예술미는 자연미와 동일한 것으로 완상되는 것이다.⁴¹⁾ 흰구름, 초막, 시냇물 소리와 시인은 하나로 어울려 物我一如의 경지에 다다른다. 여기에 맑은 바람이 산들거리고 달빛마저 비칠 때, 시인의 마음은 이러한 모든 實在를 체험하는 자각의 세계로 몰입한다. 이러한 분위기와 心境을 자아내는 달빛은 그야말로 걸림없이 자재한 나옹선사의 심적 상태를 상징하면서 無碍하고 조화로운 산속의 삶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가로움에 젖어 사는 나옹의 모습은 다음 시에서도 엿볼 수 있다.

信步來遊半夜時	발길따라 한밤중에 여기 와서 노나니
箇中眞味孰能知	이 가운데 참맛을 그 누가 알리
境空心寂通身爽	경계는 비고 마음은 고요하여 온 몸이 산뜻한데
風滿池塘月滿溪	바람은 못물을 스치고 달빛은 시내에 환하네.

〈나옹화상 가송, 月夜遊積善池〉⁴²⁾

이 시의 起句를 보면 永嘉 玄覺의 證道歌에 나오는 ‘배움이 끊어진 하릴 없는 한가한 도인’을 연상하게 한다. 性徹스님은 ‘한가한 도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배울 것이 하나도 없고 하릴없게 되면 자연히 한가한 도인[閑道人]이 되는 것입니다. 禪宗에서 깨쳤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닦아서 더 닦을 것이 없고 더 나아갈 수 없어, 배움이 끊어져 버려서 아무런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⁴³⁾

한가한 道人은 자연스러운 행위를 하는 眞人이기에 ‘한밤중’으로 비유된 無明에 구애받지 않고 유유자적할 수가 있는 것이다. 承句의 ‘眞味’는 단순한

41) 백기수, 「美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P. 18.

42) 나옹록, P. 96.

43) 「신심명·중도가」 해인사출판부, 1986, P. 100.

축자적 의미를 넘어, 禪家の 妙境, 즉 離言絕慮의 자리요, 言語道斷의 경지며, 不立文字의 세계이다. 禪家에서 표방하는 不立文字는 세 가지로 나누어 해석하기도 한다.

- ① 일반적 해석: 깨달음에는 말과 글을 세울 수 없다.
- ② 강한 주장: 깨달음에는 말과 글은 소용이 없다.
- ③ 중도적 주장: 말과 글로서는 마지막 깨달음까지 이르지 못한다.⁴⁴⁾

위의 일반적 해석에 따른다면, 眞味는 글자만으로 전달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眞味는 오로지 자신의 직접 체험으로써만 가능한 것이 된다. 곧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세계이다. 轉句에서는 못물 위에 불어오는 바람과 시냇물을 비추는 달빛은 조화롭고 결림없는 나옹선사의 心鏡⁴⁵⁾에 비친 영상이다. 한밤중, 참맛, 경계, 온몸을 바람이 스치고 달빛이 밝게 비취 조화를 이루면서 心鏡의 無碍로운 경지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禪僧으로서 나옹은 祖師關門을 깨뜨리게 하는 시에서도 달을 빌어 형상화하고 있다.

永絶群機獨出來	온갖 일을 아주 끊고 나홀로 나와
順風駕起月明歸	순풍에 돛을 달고 밝은 달에 돌아오네
蘆花深處和煙泊	갈대꽃 깊은 곳 안개 속에 배를 대니
佛祖當當覓不知	부처와 조사가 엄연하나 찾을 줄 모르네.

〈나옹화상 가송, 孤舟〉⁴⁶⁾

高麗 공민왕 19년 庚戌(1370)년 9월에는 工夫選을 마련하고 兩宗五敎의 제방 승려를 크게 모아 그들의 공부를 시험했는데, 그때 왕은 나옹선사에게 主盟이 되기를 요청하였다.⁴⁷⁾ 이때 많은 승려들을 모아 놓고 행한 나옹의 설법은 철저히 화두의 의심을 타파할 것을 역설한다.

44) 이기태, 不立文字의 심리언어학적 고찰, 「인문연구」 제12집,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1, P. 9.

45)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 상태를 비유하는 ‘大圓鏡智’에서의 ‘鏡’임.

46) 나옹록, P. 103.

47) 나옹록, P. 27. 上 遣近臣安益祥爲輔行 請住檜巖寺 九月設工夫選 大會兩宗五敎諸山衲子 選其所自得 請師主盟.

의심덩이가 풀리는 곳에는 마침내 두 가지 풍광이 없고, 지혜의 눈이 열리는 때에는 한 항아리의 불빛이 따로 있으니 비로소 일월의 새로움을 믿겠고 바야흐로 천지의 대단함을 알 것이다. 그런 뒤에 반드시 위쪽의 關門을 밟고 祖師의 관문을 쳐부수면 物物마다 자유로이 묘한 이치를 얻고, 한마디에 宗旨와 격식을 뛰어넘을 것이다.⁴⁸⁾

위의 시 起句는 나옹자신이 이와 같이 祖師關門을 뚫고 깨달음을 성취한 정신적 경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承句는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온갖 세상사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無碍行을 행하는 것이, 마치 순풍에 돛을 달고 밝은 달빛을 받으며 유유자적하게 노니는 일과 같음을 비유적으로 그린 것이라 하겠다. 순풍이 부는 밝은 달빛 속의 시인이 빚어내는 調和는 동양인이 라면 누구나 젖어들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겠는가. 게다가 갈대꽃이 흐드러지게 핀 물가, 밤안개가 희미한 나루터에 배를 대는 모습은 실로 고요와 평화로움과 안온함이 어우러진 한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하는 詩句이다. 깨달음을 터득한 뒤에 누리는 法悅의 세계이리라. 이 시에서 달은 시의 배경과 자연스런 조화를 이루면서 그 달빛은 무엇에도 걸림없는 無碍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III. 結 論

지금까지 懶翁 禪詩에서의 달의 心象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해 왔다. 禪家の 언어는 日常的인 언어이면서도 일상성을 초탈한다. 이것이 바로 平凡한 언어의 非凡性이다. 禪詩에 쓰인 언어는 지극히 압축된 언어, 비약적이고 비유적이며 고도의 상징성을 띤 언어라는 것을 살펴 왔다. 懶翁 禪詩에서의 달의 心象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六根의 體 用에 쓰인 달’에서 四壁은 地·水·火·風의 四大 色身을, 六窓은 眼·耳·鼻·舌·身·意의 六根을 상징하고 있으며, 시의 내용에 따

48) 나옹록, P. 66, 疑團落處 終無兩樣風光 眼孔開時 別有一壺春色 始信斬新日月方知特地乾坤 更須踢着上頭關 打破祖師關捩子 頭頭物物 縱橫得妙 句句言言 超宗越格.

라 미묘한 차이를 보여 주는 달——六窓風月, 六窓明月, 六窓孤月——은 佛性이나 本體의 作用, 시인의 自性 光明 등을 상징하고 있다.

둘째, ‘中道智慧를 의미하는 달’에서 밝혀진 달의 상징은 다음과 같다.

불교 철학의 최고 원리이며 궁극적 가르침인 圓敎가 中道이고, 雙遮雙照가 中道이며, 中道를 깨달으면 佛性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의 지혜는 바로 中道智慧가 된다는 것이다.

有에는 無를, 色에는 空을 내세우는 對法으로 滅盡定の 경지에 단박⁴⁹⁾에 이른 때의 心月과 물과 산에도 걸림없는 초월성을 나타내어 깨달음을 뜻하는 風月과 無念 無想의 法悅의 세계에 이른 性月은, 하나같이 兩邊을 초월하여 空을 관조하는 中道智慧를 상징하고 있다.

셋째, ‘調和와 無碍에 어울리는 달’에서 보면, 자연과 어울려 物我一如의 경지를 빚어내는 淸風和月은 無碍하고 조화로운 산 속의 삶을, 못물 위에 불어오는 바람과 시냇물을 비추는 月滿溪는 조화롭고 걸림없는 시인의 心鏡을, 순풍에 돛을 달고 밝은 달빛 속에 돌아올 때의 月明歸는 걸림없는 無碍行을 상징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나옹 선시의 自然 素材 詩語 중, 그 빈도수가 높은 하늘, 산, 바람 등에 관해서도 작품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懶翁 禪詩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49) 禪에서 ‘단박’이라는 우리말은 한자의 ‘頓’을 뜻한다. ‘단박에 깨친다’는 것을 ‘頓悟’라 한다.